

제 119호 커뮤니케이션 4,5단계

이번 호에는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두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4단계: 느낌을 꺼내 보인다.

"대부분의 일시적 관계나 업무상의 관계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제3단계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친밀한 사람들과는 좀더 자신에 대해 개방을 하게된다. '인사말', '사실', '의견'들보다 훨씬 더 자신만의 것이 감정인데, 제4단계의 커뮤니케이션에 서는 이렇게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주 많이 노출하게 되므로 제3단계의 커뮤니케이션보다 위험 부담이 훨씬 더 증폭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것은 노출한 만큼 자신의 입장이 취약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제'가 '너'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느낌이나 감정을 빼놓을 수가 없다...

"... 느낌이 자로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 확실히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 바꾸어 말해 느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면 갑자기 아주 친해진 느낌이 든다.

커뮤니케이션 5단계: 감정 이입

아주 친밀한 부부를 잉꼬 부부라고 부른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있기만 해도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다... 굳이 글이나 말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경지는 예술의 경지이고, 무아지경의 경지이고, 이심전심의 경지이다. 아마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다 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한다...

감정이입의 단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학습, 연습, 깨달은 그리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요령이나 테크닉 서적이 가짜와 속임수인것은 감정 이입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고와 의지가 소요되는 과정을 훌쩍넘어 뛰고 '그럴듯한 흉내'(사이비)로 현혹하고 이득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최성애, 한단북스, 1997)에서 따온 (with permission) 글입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과목마다 도달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다를 것입니다. 이공계는 주로 '사실' (제2단계)일 것입니다. 인문사회학 계통은 적어도 그 다음 단계('의견')에서, 순수문학이나 (특히) 예술 계통은 제4단계인 '감정' 위주로 강의실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꼭 말로 하는 "강의", "대화", "토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 내내 교수님의 말투, 억양, 표정, 몸 동작, 심지어는 학생들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교수님께서 학생에 대한 의견과 감정, 가르치는 내용(학문)에 대한 의견과 감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편집 코너>>

저는 다음주부터 6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저자인 최성애 박사가 교수님의 "자기관리"에 대한 글을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 조벽, 2001